

디지털의 거대한 흐름, 디지털 금융

보고서 관련 문의처

작성자 권지은 책임

소 속 미래전략팀

☎ 042-612-8222

✉ jieunkwon@iitp.kr

보고서 목차

1. 배경

2. 디지털 금융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변화

가. 디지털 금융, 경계 없는 무한경쟁 돌입

나. 디지털 신기술, 미래 디지털 금융 경쟁력의 핵심

3. 극복과제 및 나아갈 방향

가. 극복해야 할 과제

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방향

주요 내용 요약

□ 디지털 금융의 부상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뉴욕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 등의 연이은 폐쇄로 금융산업 위기감이 고조
- 금융산업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구조적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등장한 디지털 금융 패러다임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
- 우리나라가 디지털 금융으로의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아, 디지털 분야를 넘어 금융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 고찰이 필요한 시점

□ 디지털 금융, 경계 없는 무한경쟁 돌입

- (빅테크 기업) 빅테크 자체 플랫폼과 시장장악력을 기반으로 지급결제·대출·펀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금융산업에 진출하여 경쟁 구도 변화 촉진
- (핀테크 기업) 뛰어난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특정 전문 금융 분야로 진출을 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며 금융서비스 범위를 확대
- (전통금융업)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출에 따른 경쟁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활용하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

□ 디지털 신기술, 미래 디지털 금융 경쟁력의 핵심

- (인공지능) 금융데이터 분석·활용, 개인화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디지털 금융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향후 초거대 AI 적용으로 금융상품 전반을 고도화할 것
-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의 보관·관리, 거래·운용 등의 기반 기술로, 단순한 거래 서비스를 넘어 STO, NFT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생성하는 원동력
- (사이버보안) 디지털 금융 환경에 따라,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 새롭게 부상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사전 예방 대응 체계가 시급
-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 서버가 없이도 금융 데이터를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운영 효율화, 유연한 환경 변화 등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기술

□ 극복과제 및 나아갈 방향

- 주요 선진국 대비 부족한 국내 핀테크 기업 투자규모, 빅테크의 금융권 진출로 인한 잠재 위험 요소 전이, 디지털 금융에 대한 규제 내실화 등의 과제에 현재 직면
- 디지털 신기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금융 파트너들과의 협력 기반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며 금융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 더불어, 디지털 기술을 위한 제도적 혁신을 발판으로 삼아, 국내라는 한정된 시장을 벗어나 세계에서 금융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도전



1 | 배경

▣ 왜 지금 금융이 이슈가 되는가?

- 금융은 자체 금융산업뿐만 아닌, 국가 경제·산업 전반의 성장 견인
 - 초기에는 금융이 발전하며 실물경제의 성장을 이끌었으며, 현대에 와서는 산업의 급속히 발전과 궤를 같이하며 금융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
- 그러나, 최근 해외의 잇따른 은행 파산으로 위기감이 고조
 - 지난 석 달, 실리콘밸리은행(SVB), 뉴욕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 등 미국·유럽에서의 연이은 폐쇄로 이목과 우려가 집중
 - 특히, 실리콘밸리의 혁신생태계를 지원하던 SVB의 파산은 금융위기가 혁신산업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 왜 디지털 금융인가?

- 최근 디지털이 산업 전반으로 깊숙이 스며드는 변화 속에 '디지털 금융'이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부각
 - 디지털을 기반으로 디지털 지급결제, 비대면 대출상품, 디지털 자산 등 다양한 형태의 혁신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 금융'이 대두
 - 처음에는 금융업 자체의 디지털화가 중심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전통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형태로 발전하며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
- 디지털 금융은 금융업 자체 혁신뿐 아니라, 쏠 산업(의료·자동차·통신·쇼핑 등) 금융 이식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며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

▣ 디지털 금융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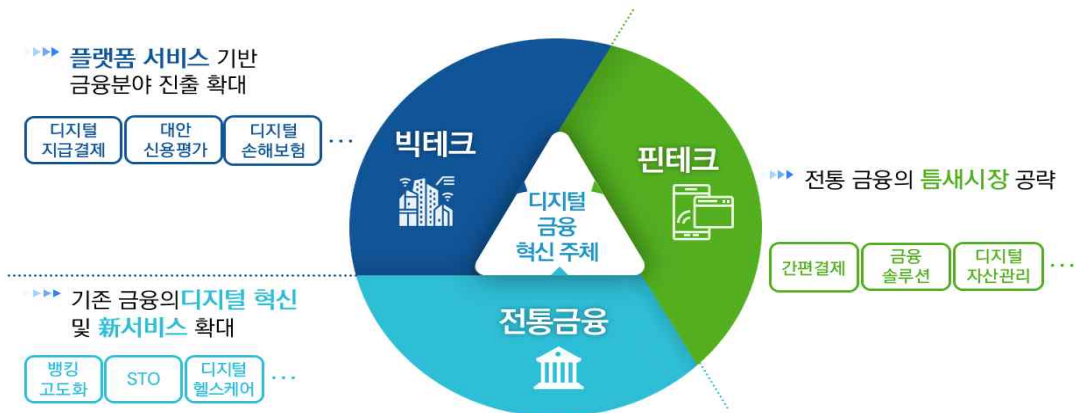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디지털 분야에서 글로벌 강자이나, 금융 분야에서는 세계를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
- 디지털 금융으로의 변화를 반전의 기회로 삼아, 세계 일류 금융 국가로 도약 기대
 - 글로벌 디지털 금융 패러다임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깊은 성찰과 조망이 요구

2 | 디지털 금융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변화

가 | 디지털 금융, 경계 없는 무한경쟁 돌입

- ◆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금융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며, '빅테크'와 '핀테크', '전통금융' 간 삼각구도 양상
- ◆ 빅테크는 플랫폼 기반으로 금융 진출을 확대 중이고, 핀테크는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신흥강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전통금융업은 디지털 혁신을 통한 대응 강화

그림1 | 디지털 금융의 경쟁구도



□ (빅테크 기업) 플랫폼 서비스를 기반으로 금융경쟁 구도의 변화 주도

- 자사 플랫폼과 두터운 고객층을 기반으로 디지털 지급결제, 대안신용평가, 디지털 손해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선보이며 금융분야 진출 확대
 - 미국의 애플·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텐센트, 일본의 라쿠텐 등 글로벌 주요 빅테크는 자사 플랫폼을 매개로 금융 서비스 영역(결제·대출·펀드 등) 확장
- 디지털 서비스 시장장악력과 고객데이터를 토대로 개인화·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권에서의 영향력이 증대
 - 특히, 디지털 기술 활용에 익숙한 밀레니엄 세대를 주요 소비층으로, 개인형 자산 설계, 맞춤형 투자자문 등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제공하며 시장을 확장 中

표1 주요 빅테크 기업 금융 진출 현황

기업	진출 현황
	- 아마존 페이(Amazon Pay) 중심으로 자사 고객 맞춤형 बैं킹 서비스 제공 - 아마존 웹서비스(AWS)는 금융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도화
	- 아이폰 자체를 단말기로 활용하는 간편결제방식 '탭투페이(Tap-to-Pay)' 확대 - 수수료나 이자 없이 결제 금액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선구매·후결제 서비스 출시('23.3)
	- 대출업, 비승금 서비스, 단기 소액대출서비스, 신용도 평가 등 알리페이 계정으로 활용 70여개 금융상품을 통합해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알리바바 클라우드 금융 솔루션' 출시('22.9)
	- 모바일 메신저를 기반으로 은행, 증권, 보험, 소액 대출, 펀드 등 다양한 분야 서비스 제공 - 영국 인터넷 은행 '몬조' 지분 인수('22.1) 등 공격적인 해외 투자로 디지털 금융 분야 사업 확장
	- 인터넷쇼핑몰을 기반으로 예금, 카드, 자산관리, 보험판매 등 금융업으로 확장 - 자사암호화폐 거래소 '라쿠텐월렛'과 결제앱 '라쿠텐페이'를 연결하여 암호화폐로 대금 지급 시행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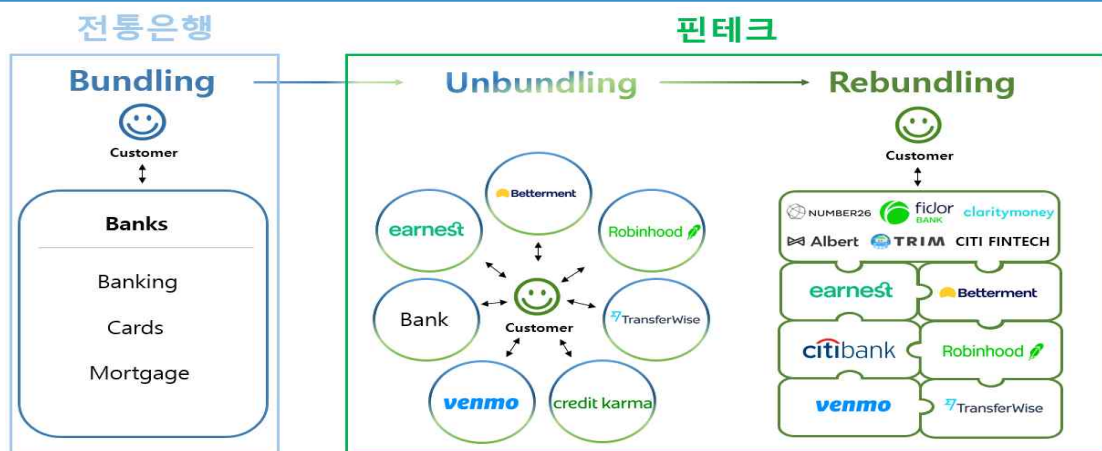
자료 : 삼정KPMG(2022.5), 언론보도 종합

□ (핀테크 기업) 전통금융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신흥강자로 부상

- 우수한 디지털 기술력을 기반으로 금융권 진입이 용이한 간편결제, 자문 서비스 등 전문 영역에 집중하며 금융 분야 진출이 활발
 - बैं킹·카드·용자 등을 모두 제공하는 방식(bundling)은 인허가 획득과 인프라 구축에 시간·비용이 크게 소요됨에 따라, 핀테크 기업은 특정 분야(unbundling) 중심으로 진출을 모색
 - 미국의 베테르먼트(자문서비스), 영국의 로빈후드(주식), 독일의 소파이(대출) 등은 전문 서비스를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 시장에 진입하며 핀테크 강자로 도약
- 최근에는 간편결제를 넘어, 금융솔루션, 웰스테크*(디지털 자산관리), 주식·대출 등 새로운 서비스(rebundling)를 갖추며 사업 영역의 확대가 본격화

* '웰스(Wealth)'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자산관리와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자산관리를 지칭

그림2 금융서비스 전략의 변화



자료 : 시티벤처스(2017.2), 재구성

□ (전통금융업) 사활을 건 디지털 혁신으로 대응 강화

- 전통금융업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 분야 진출 확대, 핀테크 기업의 은행 고유영역 진입 가속화 등으로 인해 치열한 생존경쟁에 직면
 - 특히, 빅테크가 디지털 서비스를 통한 수익을 고객에게 혜택(수수료 감면, 소요일수 축소 등)으로 환원함에 따라, 전통금융업 고유 분야(예·적금, 대출 등)의 고객이 대거 이탈
- 이에, 디지털을 적극적으로 수용·활용하며 체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
 - 미국의 골드만삭스(디지털 대출 플랫폼), 스페인의 BBVA(뱅크고도화), 이스라엘의 르미은행(모바일 전용 뱅킹) 등이 전통금융업 디지털 혁신의 대표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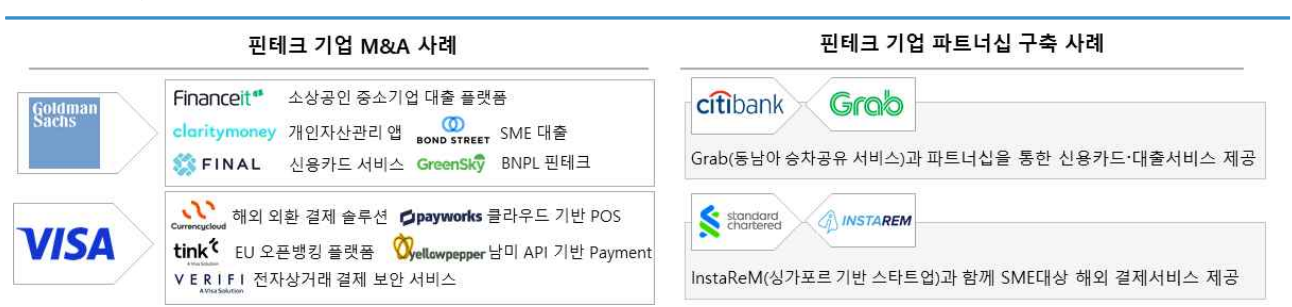
표2 주요 전통금융업의 신서비스 확장 사례

기업	진출 현황
Goldman Sachs	- 리테일 디지털 대출 플랫폼인 마커스 출시('16)하여, 460억달러 예금, 400만명의 고객 확보('19.5) - 마커스를 거점으로 M&A, 파트너십 등을 통해 종합 금융 투자 플랫폼으로 확장·발전
BBVA	- 디지털 혁신을 위해 핀테크 중심의 투자, 파트너십, M&A 등 다중 혁신전략 추진 - 디지털 고객 3,210만명, 모바일 고객 2,900만명을 기록하며 성장('19년 기준)
leumi	- 디지털 세대만을 겨냥한 독립형 모바일 전용 플랫폼 '페퍼'출시 - 페퍼는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디지털 샌드박스 및 르미의 IT인프라 시스템 전환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역할

자료 : 삼정KPMG(2021.1)

- 또한, 빠른 디지털 기술력 역량 확보를 위해 핀테크와 협쟁(協爭)이 활발하며, 핀테크 스타트업은 직접 육성하거나 M&A 등도 적극 추진

그림3 전통금융업과 핀테크 간 협업 사례



자료 : 삼정KPMG(2023.4), 재구성

- 더 나아가, 새로운 디지털 자산(STO·NFT 등)*과 비금융(헬스케어·모빌리티·주택·여가 등)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새로운 활로 모색

- *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토큰발행) :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발행·유통함으로써, 실물 자산·금융자산 등을 조각내어 거래되도록 한 디지털 자산
- * (日, SBI그룹) 자회사 주식 STO 발행, (VISA) '22 카타르 월드컵 기념 NFT 경매 진행 등

나 디지털 신기술, 미래 디지털 금융 경쟁력의 핵심

- ◆ 인공지능·블록체인·사이버 보안·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신기술이 전 산업으로 융화되는 가운데, 금융분야에서도 적용이 활발
- ◆ 디지털 신기술이 기존 금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또 새롭게 금융서비스를 확장하며 금융업의 판을 바꿀 것으로 예상

표3 디지털 신기술의 금융 활용 분야

구분	역할	활용분야
 인공지능	'성장동력'	신용평가위험관리, 로봇프로세스 자동화(RPA), 이상거래탐지 등
 블록체인	'필수기술'	STO, NFT, 분산신원증명, 사기방지, 송금결제 등
 사이버 보안	'전제조건'	디도스 공격 차단, 사이버테러 방지, 전산망 안전, 금융정보 유출 방지 등
 클라우드 컴퓨팅	'핵심 인프라'	인프라(IaaS), 플랫폼(PaaS), 서비스(SaaS) 지원 등

□ (인공지능) 금융업을 혁신·발전시키는 '성장동력'

- 인공지능(AI)은 단순 금융의 자동화를 넘어, 금융데이터의 분석·활용, 자율판단, 개인화 서비스 등 디지털 금융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술
- 처음에는 챗봇, 로보어드바이저 등 한정된 분야에서만 일부 적용되었으나, 최근 AI가 보편화·고도화됨에 따라 금융분야에서 활용이 크게 확대
 - 신용평가위험관리, 금융시장 예측,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이상거래감지 등 지능형·자율형 금융서비스로 확대 중
 - 또한, AI를 접목한 고객 서비스 개선, 내부 업무 효율화 등에도 적용이 활발

표4 금융분야 인공지능(AI) 도입 유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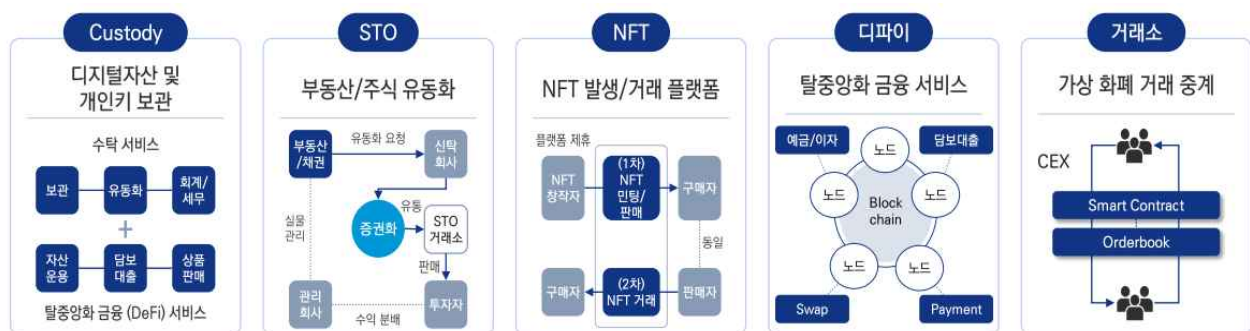
구분	세부 내용
신용평가위험관리	• 인공지능(머신러닝·딥러닝)을 적용함으로써 예측력이 향상된 신용평가 모형 개발
금융시장 예측	• 알고리즘 트레이딩(퀀트:Quant)에 인공지능을 접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금융 시장 예측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 인공지능을 통한 대출 과정 자동화로 업무 지원 소요 비용을 경감 • 기존 사람이 중심이 되어 처리했던 업무를 인공지능 로봇으로 자동화하기 위해 RPA 도입
이상거래탐지	• 레그테크(RegTech) 도입과 함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준법감시 시스템 증가 • 기존 사기 탐지 방식을 인공지능 기반 FDS(Fraud Detection System)로 고도화

- 향후 챗GPT와 같은 '초거대 AI'가 맞춤형 투자, 고객 재무분석, 자산운용 등에 본격 활용되며 금융상품의 제조·유통·관리 전반을 고도화시킬 것으로 예상
 - 금융권에서는 자연어처리 기술을 토대로 단순 챗봇을 넘는 AI 금융비서를 출시(또는 출시 준비) 중으로, 앞으로 금융분야에 적용이 확대될 전망
- * 미국 자산 1위 은행 웰스파고(Wells Fargo & Company)는 고객에게 맞춤형 응답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글 대화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AI 비서 'Fargo' 출시 준비('22.10)

□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을 구동하는 '필수기술'

- 블록체인은 디지털 자산의 보관·관리, 거래·운용 등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기술
 - 블록체인 기반으로 STO, NFT, 커스티디(디지털 자산 위·수탁),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 서비스 운용이 가능
 - 다양한 유·무형(천원자원, 금, 미술품, 기술 특허권 등) 자산의 소유권이 토큰화되며 거래의 용이성·수익성을 고도화하는 데도 기여
- * 토큰화 자산시장은 '30년까지 전세계 GDP의 10%에 달하는 약16.1조 달러 규모로 성장 예측(보스턴 컨설팅 리서치 그룹, 2022.9)

그림4 🔗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된 비즈니스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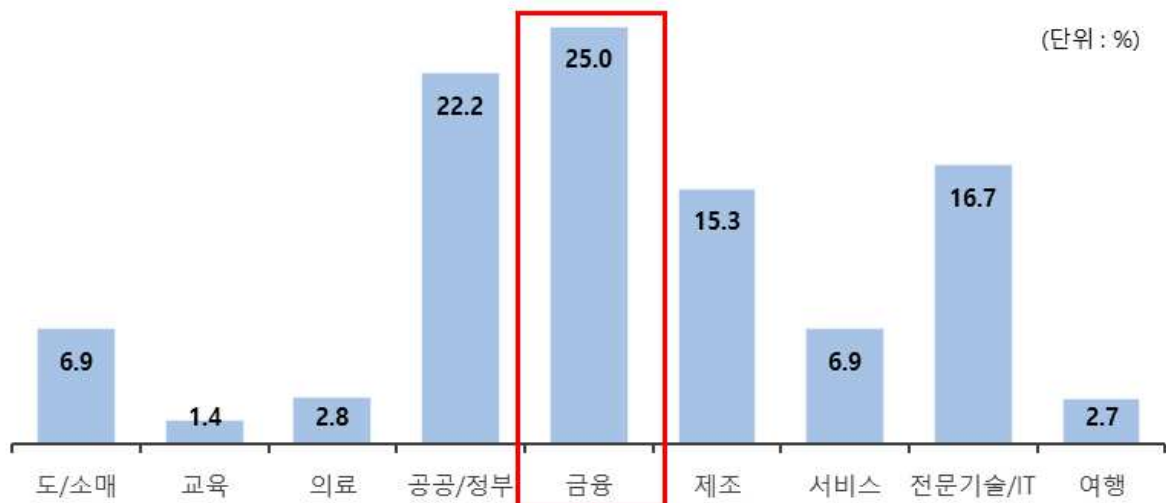
자료 : 삼정KPMG(2023.4)

- 더불어, 분산신원증명(DID), 해외 송금·결제, 사기 방지 등 프로세스 개선에 활용되며 비용 절감에도 기여
 -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신원 증명 신속화, 통화 환전 생략, 계약문서 디지털화, 거래 보안성 강화 등 업무 구조와 비용 개선이 가능

▣ (사이버보안)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전제조건'

- 네트워크 해킹 위험이 금전이 오가는 금융 분야에 집중됨에 따라, 사이버보안은 금융거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디지털 기술
 - 전 세계적으로 디도스 공격, 사이버 테러, 전산망 마비, 금융 정보 유출 등이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최근 디지털 자산 탈취 등 신종 금융거래 사고의 증가로 사이버보안이 더욱 강조
- * 미국 금융지주회사 캐피탈원의 서버 해킹 공격으로 인한 고객 데이터 유출사고('19.8), 미국 블록체인 기업 하모니 1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22.6) 등

그림5 글로벌 업종별 보안 침해사고 발생 통계



자료 : SK실더스(2022.6), 재구성

-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맞서, 기술적 전략(보안솔루션 자동화·지능화 등)과 제도적 전략(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구축, 모의 훈련 등)을 병행하는 전방위 사이버보안 체계가 확산
 - 특히, 금융분야 내 디지털 환경 변화(오픈소스 확대, 금융데이터 증가, 디지털 자산 활용 등)에 따른 리스크의 선제적 파악·대응이 중요

표5 2023 디지털 금융 및 사이버보안 10대 이슈

순번	내용	순번	내용
1	사이버 공격 경로로 악용될 수 있는 엔데믹 취약점	6	인공지능 활용, 공정성·보안성 확보를 통한 이용자 보호 필수
2	랜섬웨어, 피싱앱 등 사이버 위협의 끝없는 진화	7	디지털 신원증명 활용에 따른 기대와 우려
3	오픈소스 이용 활성화와 강조되는 공급망 보안	8	금융보안 규제 합리화, 전제되는 자율 보안
4	디지털자산의 당면과제, 리스크 관리체계 마련	9	마이플랫폼 시대, 데이터 확보와 보호
5	대세로 자리잡은 클라우드와 보안 고려사항	10	금융권 채널 변화의 핵심 디지털 연결

자료 : 금융보안원(2022.11), 재구성

☐ (클라우드 컴퓨팅) 금융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

- 클라우드 컴퓨팅은 자체 서버 없이 개인 신용정보 등을 위탁해 저장·관리하며 효율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인프라
 - 클라우드 컴퓨팅이 금융 분야에 적용되며 운영 효율화, 혁신적 고객 서비스 제공, 유연한 환경 대응, 보안 강화 등에 기여

표6 금융산업에서의 클라우드 도입 효과

구분	세부내용
운영 효율화	• 거대 금융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통합·연결하여 데이터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운영 비용은 절감
고객 서비스 혁신	• 모든 채널에서의 고객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초개인화된 맞춤 금융서비스 제공
유연한 환경 대응	• 신규 금융 상품·서비스 적용에 유연한 시스템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유리
금융 보안 강화	• 인프라, 플랫폼, 소프트웨어 등 클라우드 자체 보안 솔루션을 통한 금융 안전성 강화

- 최근 클라우드는 IaaS(기본 서버 구성 등 인프라), SaaS(금융 데이터 분석 등 소프트웨어), PaaS(금융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플랫폼) 등 전 분야에서 서비스 활용이 활발
- 앞으로, 초기 인프라 구축 기간·비용 최소화, 유연한 사업 범위 확장 등으로 이어지며 스타트업의 디지털 금융 분야 진입을 더욱 촉진 시킬 것으로 예상

☐ 그 외에도, 통신 인프라는 디지털 금융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요소'

- 차세대통신기술은 모바일 간편결제·간편송금 등 디지털 금융거래를 작동시키는 기본 인프라로, 금융거래의 속도를 뒷받침하며 시간·공간 제약 없는 금융 활동을 구현
 - 특히, 5G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금융 데이터를 충당하며, 금융 환경 혁신, 금융 인증 고도화, 부정행위 방지 등 서비스 향상을 지원

표7 금융산업 5G 도입 영향

구분	세부 내용
초연결을 통한 금융 환경 혁신	• 빅데이터, API 등 기술의 연결·확장을 통한 효율성이 극대화된 금융 시스템 구축 지원
금융 인증 고도화	•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와 생체정보 활용 인증으로 원격지원 자문 등 비대면 서비스 고도화
사전 부정행위 방지	• 트랜잭션, 거래금액 이동정보 등 대량 데이터 실시간 확인을 통한 사전 부정행위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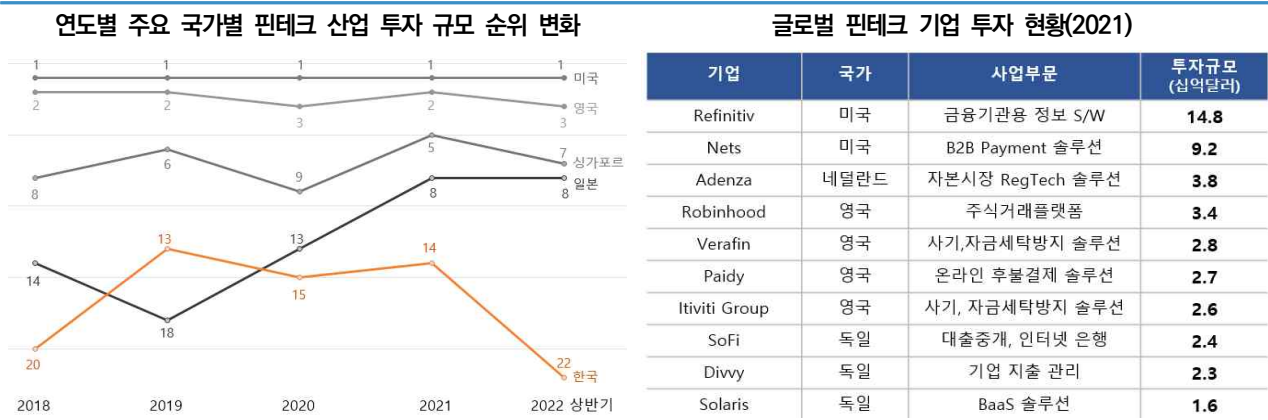
3 | 극복 과제 및 나아갈 방향

가 | 극복해야 할 과제

▣ 글로벌 수준에 못미치는 국내 핀테크 기업 투자

- 글로벌 핀테크 기업은 신기술 확보, 인프라 확충, 서비스 개발 등 내부 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추세이나, 국내 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비
- 글로벌 국가 핀테크산업 투자 순위에서 한국은 22위에 그치며, 글로벌 핀테크 투자 상위 기업 중 국내 기업은 부재한 상황

그림6 | 글로벌 핀테크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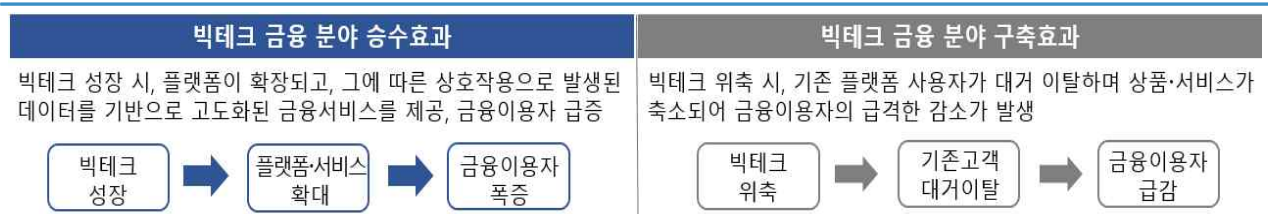


자료 : (좌) 한국핀테크 지원센터(2022) / 삼성KPMG, 재구성, (우) Pitchbook / 삼성KPMG(2023), 재구성

▣ 빅테크 리스크의 금융분야 전이 잠재

- 빅테크가 금융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플랫폼 서비스의 성장 여부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일 수 있어, 빅테크에 의한 변동 가능성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우려
- 빅테크 기업이 성장 시에는 금융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승수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위축 시에는 금융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구축(驅逐)효과'를 야기

그림7 | 승수효과 vs 구축효과 비교



- 한편,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따른 정보 과점은 금융시스템의 정보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그림8 미국 주요 빅테크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제기 사례

구 분	주 요 내 용
 Meta	메타가 운영하는 타플랫폼과의 경쟁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소셜 미디어 시장을 독점한 혐의
 Google	스마트폰에 자사 앱을 디폴트(default)로 선 탑재하게 하여, 게이트키퍼 지위를 유지한 혐의
 Amazon	제3판매자들의 데이터와 정보를 자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한 혐의
 Apple	애플스토어 통제를 통해 경쟁업체를 차별하고, 자사 제품을 선호하게 유도한 혐의

자료 : 삼정KPMG(2022.5), 재구성

□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

- 전반적인 국가 경제 관리체계 측면(환율·통화 등)에서 빅테크·핀테크를 포함하는 전제적인 관리에 있어 일부 놓치는 부분 발생 가능
 - 특히, 경기침체 등 위기 시에 더욱 문제가 될 것이며, 금융 전반에 대한 조망이 어려울 시 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는 데도 제약이 예상
 - * 과도한 시장지배력, 불공정 경쟁, 서비스 단가를 위한 취약한 고용 등 빅테크 관련 규제 공백 존재(한국은행, 2022.1)
- 또한, 디지털 기반 금융산업 구조 변화와 신상품·서비스가 출시되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
 - 미국, EU 등 주요국은 소비자 투자 보호, 불법금융 퇴치 등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개선 중이나, 우리는 아직은 미흡한 상황*
 - * 특별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규제는 마련되었으나, 디지털 자산 전반의 입법안은 논의 단계

그림9 글로벌 디지털 금융 규제혁신 사례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EU 디지털자산 규제안(MiCA)
프레임워크 주요 항목			규제안 핵심 사항
소비자 투자자 기업 보호	재무안정성 확보	불법금융퇴치	작업 증명(POW)에 대한 금지 제안 철회, NFT 부문은 합의에서 제외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 이용 촉진	CBDC 개발 모색		증권형토큰, 유틸리티토큰,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으로 세분화
글로벌 금융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	책임 있는 혁신 추진		소비자·투자자 보호 필요수준에 따라 규제 차등화

자료 : 삼정KPMG(2023.4), 재구성

▶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방향

▣ 디지털 신기술 개발·도입을 위한 투자 확대

- 미래 디지털 금융의 경쟁력은 디지털 신기술이 좌우할 것으로,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력 확보와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투자 강화
- 이와 함께, 디지털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도 적극 개발

▣ 협력·상생 기반 개방형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 기존 금융업의 자사 금융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적 소통방식에서 탈피, 다양한 금융 플레이어(디지털 자산·핀테크·플랫폼증권카드 등) 간 협력 추진
- 나아가, 자동차·의료·통신·쇼핑·여가 등과 연계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창출을 위해 비금융 분야와의 협력도 확대

▣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의 담대한 도전

- 국내라는 한정된 시장을 벗어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 주도
-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해외 금융시장 정보제공에서부터 해외 진출 거점 지원, 현지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해외 투자매칭 등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으로 지원

▣ 규제혁신을 통한 디지털 금융 도약 발판 마련

- 낡고 경직된 규제는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확장을 저해함에 따라, 금융서비스의 혁신성을 보장하면서 안전성은 확보되는 치밀하고 유연한 규제체계 정립
- 더불어, 전통금융과 비금융간의 규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공정경쟁이 가능한 제도적 개선 추진

ICT SPOT ISSUE

- ☑ 발 행 일 : 2023년 6월 8일
- ☑ 저 자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미래전략팀
- ☑ 발 행 인 : 전성배(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 ☑ 발 행 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 ☑ 전 화 : 042) 612-8001
- ☑ 홈페이지 : www.iitp.kr
- ☑ 본 저작물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으로 개방하였으며, 기관 홈페이지(www.iitp.kr)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